

도내 연구학교 지원체계 강화

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 등 총 5개 과제 12개 학교 지정 운영

전북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전북미래교육 실현의 미중추가 될 연구학교의 내실 있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과 교실수업개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목적으로 4년 만에 재개된 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연구과제로 △다문화학생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사회 협력 모델 개발(초·중 각 1교)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운영을 위한 나이스플러스 활용 방안(초 5교) △교육과정적 통합을 위한 특수일반교사 협력 방안(유·초 각 1교) △고교 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학생진로성장지원 중심 학교교육과정운영 및 학교운영 혁신방안(고 1교) △초등학교 학교급 전환시기 진로연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초 2교) 등 총 5개 과



전북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은 전북미래교육 실현의 미중추가 될 연구학교의 내실 있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사진=전북도교육청 제공>

제 12개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연구학교에서는 상반기 동안 연구학교 운영 여건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설계 및 연구과제를 반영한 실증수업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활동이 추진됐다. 또 에듀테크를 접목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미래교육의 다양한 수업모델이 구안될 수 있도록 수업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했다. 이에 하반기에는 연구학교를 통한 성공적인 수업모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해 혁신적인 교육방법과 프로그램을 마련, 학교 현장에 일반화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영석 미래교육지원부장은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통해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내고, 학생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올 하반기

초등돌봄교실 컨설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하반기 초등돌봄교실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5명 이상인 31개 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란 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학생 중 지속적으로 입실을 희망하는 학생을 의미한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해당 학교의 돌봄교실 현황을 파악해 대기자가 15명 이상인 학교는 돌봄교실 및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증설, 에듀케어(educare) 운영 등의 방향으로 대기자가 15명 미만인 학교는 학교밖 방과후·돌봄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여름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과 하반기 돌봄교실 시간 연장 관련된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본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내년 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해 전북의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는 433명(2023년 3월 4일 기준)으로 지난해 964명 대비 55% 감소했다. 이는 올 2월 대기수가 높은 28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돌봄교실 5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9실을 증설한 결과다.

민원성 미래교육과장은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수요 해소 위해 초등돌봄전담사 배치 및 예산 확보에도 민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교육연수원

예술심리치유 역량강화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수원(원장 고한중)은 2023년 행복한 교실을 위한 학생상담 및 예술심리치유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날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연수에 초등교원과 교원 전문직원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심리와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상담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복한 교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특히 음악, 미술, 문학, 생태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활용한 교육활동 기법을 습득해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적응을 지원하고, 행복한 학교 운영을 위한 교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학급 관리 능력을 강화해 학생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면서 상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발달과 성취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모해 행복하고 안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교육청은 2~3일 이틀 간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내에서 '미래세대 대상 청렴 캠페인'을 실시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2일 잼버리 청렴 홍보부스를 직접 찾아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도교육청, 잼버리 미래세대 대상 청렴 캠페인

새만금 잼버리장 내 청렴 홍보부스 운영... 청렴문화 확산 일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3일 이틀 간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 내에서 미래세대 대상 청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잼버리에 참여한 세계 각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에게 청렴 의식을 심어주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청렴 홍보부스를 찾은 청소년들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다짐을 적어 보는 '청렴실천 다짐 작성' △갑질, 부정청탁 과녁을 맞히는 '청렴 레이저사격' △청렴 문구가 새겨진 스티커 사진을 찍는 '청렴 네컷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정은성 기자

한편 서거석 교육감은 2일 잼버리 청렴 홍보부스를 직접 찾아 청렴실천 의지를 다졌다. 서 교육감은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들이 일상 속 청렴 실천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미얀마 핵심 인재 육성에 디딤돌 | 전주대, 노블대와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1일 미얀마 양곤에서 노블대학교(Noble University, CEO 맏잔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AFA 백성기 이사, 이재명 미얀마 지부장과 미얀마 한국대사관 단원배 명예총영사, 그리고 노블교육그룹 우민웅(U Mint Aung) 의장, 우네이 윈(U Nay Win) 부의장 등이 참석해 양교의 협력을 축하했다. 노블대 맏잔류 CEO는 "전주대가 신기술 분야의 차세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 선정, 노블대의 학생들에게 뛰어난 IT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배 총장은 "미얀마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 육성이 중요한 만큼 노블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핵심 인재 육성에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양교는 한국어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한국어 교육자료 공유 등을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이 지난 1일 미얀마 양곤에서 노블대학교 맏잔류 CEO(사진 왼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통해 양질의 한국어 교육이 미얀마 현지에서 이뤄지는 데 적극 협력하고, 또 교환학생 및 신입입학 영어 트랙을 통해 전주대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많은 노블대 학생들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박진배 총장은 전주대학교의 글로벌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얀마 중앙은행과 각 지방은행의 네트워크

크 인프라 확장에 선두기업인 MIT 기업, 그리고 한국의 이노그룹(Inno Group)이 미얀마 양곤 현지에서 건설 중인 이노시티(Inno City) 등을 방문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직원과 총학생회 학생 등 50여명은 2일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의 화훼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호우 피해 아픔, 함께 나눕니다'

전북대, 김제 용지면 찾아 수해 피해 복구 나서

전북대학교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직원과 총학생회 학생 등 50여명은 2일 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 용지면의 화훼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에 따르면 이날 전북대 구성원들은 휴탕물이 들어차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 안의 다육식물 배양상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등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전북대는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억 원 규모의 '총장 특별재난지원 장학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 재난장학금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시, 군, 읍·면 사무소가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전북대 대학본부 학생과(063-270-4141)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 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봉사활동을 함께 한 전북대 이상호 총동아리연합회장은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피해 어르신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진심을 다해 참여한 우리들의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전해질지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플래그십대학으로서 지역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나서게 됐다"며 "수해로 신음하는 지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본격 활동

현장 교원·교원단체 등 참여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 교원, 교원단체, 전북학운협회장, 전북학부모협회 등 16명으로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 구성, 지난 1일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는 올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8월 한 달간 매주 1회 집중적 협의를 통해 9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이는 악성 민원 대응을 중심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예방 대책,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대응 시스템 구축, 법를 개선과 제도 개선을 위한 교육부 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보호 대책은 올 2학기부터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과, 내년도 예산 수립에 반영될 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직무대리는 "교육활동 보호 협의체를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통한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2일 서거석 교육감을 초청, 유치원 1급 정교사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

전북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원장 강혜정)은 2일 서거석 교육감을 초청, 유치원 1급 정교사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날 24일부터 오는 1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이날 특강은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대상자 59명(공립 33명, 사립 13명, 기간제 2명)이 참여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이날 교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를 지도하는 유치원 교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에 대해 강의했다. 특강을 통해 미래교육을 위한 전북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가족 모두가 합심해 전국을 넘어 세계에서 앞

서는 전북교육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연수생들에게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의 현장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연수 과정을 살펴본 서 교육감은 "미래형 디지털 놀이교육 속으로 △디지털 대전환시대 유아교육의 방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놀이목표 사례 나눔 등의 과정을 통해 유치원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정 원장은 "전북교육청의 10대 핵심과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에 맞게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